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슈나이더 일렉트릭, 파트너사 케이엠파워와 함께 월드IT쇼에서 통합 전원 보호 솔루션 선보여

- 가정용부터 기업용까지 다양한 니즈와 여건을 충족시키는 통합 전원 보호 포트폴리오 공개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케이엠파워의 월드IT쇼 전시 부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시메트라 PX(Symmetra PX)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대표 김경록)가 서울 코엑스에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월드IT쇼에 데이터센터 솔루션 파트너사인 케이엠파워(대표 나미숙)와 공동으로 참가해 통합 전원 보호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가정, 오피스, 소규모 사업장에서부터 데이터센터까지 각각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UPS(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선보이며, 네트워크 및 서버를 위한 인프라 솔루션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정 통신장치와 PC 등 가정용 전자 제품을 정전이나 불안정한 전력공급으로부터 보호하는 홈 솔루션부터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비즈니스의 핵심 장비와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다양한 전원 보호 포트폴리오가 공개된다. 또 스마트 UPS(Smart-UPS) 제품군, 시메트라 PX(Symmetra PX)와 백-UPS(Back-UPS)를 전시하여 중소 규모 IT

환경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솔루션을 선보인다.

스마트 UPS VT(Smart-UPS VT)는 콤팩트한 디자인과 런타임(Run time, 실행시간) 확장이 주요 특징인 고성능 전원 보호 3상 UPS로,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 각광받는 제품이다. 다양한 형태의 모델로 구성되어 15~40kVA 전원 범위의 소규모 데이터센터 및 중요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핫스왑(Hot Swap)이 가능한 배터리 모듈, 런타임 확장용 배터리 인클로저(Enclosure), 2중 메인 압력과 자동 및 유지 관리 바이패스를 제공하여 가용성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스타트(Soft Start) 기능을 통하여 케이블, 변압기, 발전기 등과 같은 전기 인프라의 비율을 낮춰 합리적인 유지비용이 보장되며, 낮은 부하 단계에서도 최고 96%의 효율을 달성하여 에너지 손실 및 운영 비용을 최소화시켜 총소유비용(TCO)을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다.